

세계유산 등재 위한 근대유산 발굴

국가유산청, 예비잠정목록제 운영 전수 조사·기존 목록 등 재검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등재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 일부 달라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 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 잠정목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먼저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잠정목록은 각국에서 세계유산 대표 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목록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 잠정목록에는 '강진 도요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양주 회암사지 유적',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등 13건이 있다.

잠정목록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다양한 분야의 유산을 아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상향식(bottom-up)으로 등재 종목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을 보완해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예비 잠정목록' 제도를 통해 다양한 유산을 발굴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남 대흥사를 비롯한 7개 사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해남 대흥사 추경. <광주일보 자료>

특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거나 등재되지 못한 근대유산, 자연유산, 문화경관 등을 예비 목록에 올려 잠정목록으로 선정하거나 주요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예비 잠정목록에 올릴 만한 유산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그간 잠정목록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나서 (등재 후보) 유산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잠정목록에 올라 있는 유산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적어도 10년에 한 번 잠정목록을 재검토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목록을 재검토하게 되면 잠정목록 선정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유산은 제외될 수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각 지자체에 이런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예비 잠정목록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을 확대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및 보존 관리를 재정립해 전략적으로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장애·비장애인 함께 영화 보아요

CGV 상무점, 시·청각 장비 체험 상영회... 9일 '탈주'

'배리어프리영화' 또는 '가치봄 영화'는 사정각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같은 영화관에서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음성·자막해설을 제공하는 작품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은 장애 여부를 떠나 누구나 영화 관람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동시관람 행사인 '가치봄 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어서 와, 동시관람은 처음이지?' 무료관람 상영회를 오는 9일 오전 10시, 오후 2시 30분 CGV 광주상무점에서 연다.

이제훈 배우가 광주 야산 등에서 촬영하며 입소문을 모았던 이종필 작 '탈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 '탈주'는 휴전선 인근 북한 최전방 군부대에서 만기 제대를 앞둔 중사 규남(이제훈 분)이 철책 너머로 탈주하는 내용이다.

규남의 계획을 알아챈 하급 병사 동혁(홍사빈)이 먼저 탈주를 시도하고, 이를 말리려던 규남까지 협사이면서 보위부 소좌 현상(구교환)과 쫓고 쫓기는 탈주극이 펼쳐진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화자 및 대사, 음악과 음향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폐쇄형 자막을 제공



일반버전 영화(왼쪽)와 배리어프리버전.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제공>

한다. 관람에 필요한 AR글라스, 이어폰 등 장비는 현장에서 대여해 준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함께 관람하는 비장애인은 이어폰(소리)이나 휴대폰(불빛)이 관람에 불편을 줄 땐 손짓으로 상황을 알려주면 된다"며 "디지털 격차를 기술로 극복하는 이번 시도에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링크 신청(장애 유형에 따라 수어통역사 및 보조 안내 인원 지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대 호남학연구원-中 안휘대 공동 학술대회

동아시아 문화 간 갈등 해소 등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이 최근 중국 안휘성 합비시에서 안휘대학 위학연구원과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올해는 특히 두 연구소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8명이 주제 발표와 토론 등에 참여해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과 풍성한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학술대회는 지난 2007년부터 한중 교대로 개최해왔으며 올해 주제는 '근대 동아시아의 사상, 학술, 문화 교류의 상호 감성'.

호남학연구원의 조대성 교수가 '한중일 누정원림의 조영과 그 가치'를, 최혜경 교수가 '동아시아 이문화 간 소통과 갈등 해소의 전략: 금남(錦南)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 분석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어 위학연구원의 천루이(陳瑞) 교수가 '송대 휘주의 토지매매'에 대해, 왕셴쑹(王獻松) 교수가 '해폐의문도: 대진 학술의 참사상을 논하다'를 발표했다.

두 연구소는 이번 학문 후속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기로 향후 대학원생 연수 등 국제교육 프로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중국 안휘대학 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 모습.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제공>

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명중 호남학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7년간 쌓아온 학술교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연구 주제를 발굴, 공동으로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두 연구소는 한중 두 나라의 지역학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립대 김선기 교수 '한국출판 평론상'

'한강 신드롬 ...' 출판계 진단·분석

전남도립대 교양학부 김선기(사진) 강의 교수가 제30회 한국출판 평론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한국출판연구소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은 최근 제30회 한국출판 평론상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교수의 평론 '한강 신드롬과 한국 출판산업의 상관성'을 올해의 출판 평론상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한강 신드롬 ...'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되살아난 한국 출판계의 어제와 오늘을 분석·진단하고 문화와 산업을 통섭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심사위원들은 "평론 '한강 신드롬과 한국 출판산업의 상관성'은 험프리의 SWOT 모형 이론을 적용, 한국 출판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현안을 냉철히 분석·진단하고 미래의 발전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김 평론가는 "올해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노



벨문학상을 받은 뜻 깊은 해이다.

이번 평론은 한강 작가의 신드롬이 한국 출판산업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살피며 글"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문학, 출판과 연계된 평론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전남대 국문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문화 전문 기자 출신으로, 강진군 시문학 파기념관 관장을 역임했다. 2021년 시 전문지 '시와사람' 문학평론 등단했으며 '시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등 5권의 저서를 냈다.

현재 전남도립대학교 교양학부 강의 교수이며, 시 전문지 '시와문화'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 서울 동송동 마로니에공원 내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